

발레·마술쇼 뮤지컬까지 '관객과 맞춘다'

익산예술의전당 '방방곡곡 문화공감' 추진
선정작 다섯편 이달부터 잇따라 공연



①연극 '알폰스 도데의 별'
②가족 음악극 '리틀 뮤지션'
③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익산예술의전당이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해온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시는 14일 올해 선정작인 뮤지컬과 연극, 발레 등 다섯편이 이달부터 두 달 동안 익산예술의전당과 습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공연은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되며 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체크, 전자방문자 기록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첫 번째 선보이는 공연은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으로 17일(오후 3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동화를 발레와 마술쇼, 현대무용으로 재구성 하는 등 해설이 있는 동화 발레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오는 31일(오전 11시, 오후 3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고도의 사운드 디자인과 시스템을 이용해 시각 장애인 관객들도 소리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연극 '알폰스 도데의 별'을 선보인다.

새 단장과 함께 새롭게 관객들을 맞이할 습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는 이달 30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가족 음악극 '리틀 뮤지션'이 공연된다. 시각적인 설명보다 배우의 신체와 소리의 환상을 이용하여 색다른 체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환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달에는 습리문화예술회관에서 두 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우선 다음달 21일(오후 3시, 7시)에는 습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피아노와 해금 라이브 연주와 개그맨

들의 열정, 꿈, 사랑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같은 달 27일(오후 7시 30분)부터 28일(오후 3시, 7시)까지 이틀 동안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3D프로젝션매핑 기술을 사용하여 고흐의 명화 50여 점을 무대영상으로 구현하고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의 편지를 통해 전하는 감동이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하에 다양한 공연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문화로 쉽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22일까지 모집

시각예술분야 예술인들 대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외부 활동 및 관공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로 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로 쉽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공연과 전시를 연계해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14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www.jct.or.kr)를 통해 도내 시각예술분야(3인 이상) 4~5개 단체와 예술가를 모집하며, 프로젝트 특별 회당 300~40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복지시설(장애인 등)에 찾아가 공연·영상 및 전시설치의 비대면 문화향유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참여 예술가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기본 방역물품 및 운영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min@j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 및 누락방지를 위해 방문과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도민에게 이번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치유, 그리고 문화로 떠나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내 인생의 멘토를 소개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누구나멘토'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인생친구 스토리 발굴 '누구나멘토'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생나눔교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에서 인문가치와 주변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이번 '누구나멘토' 공모전은 나이·성별·직종 등 상관없이 나의 인생친구를 소개해 그 사연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특별 기획사업이다.

대상은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 지역민과 인생나눔교실 멘토 활동자(2015~2020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6일

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www.jct.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재단은 '내 인생의 멘토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최우수 3명씩(일반인 3명, 인생나눔교실 멘토 3명) 총 21명 내외 선정, 총 480만 원의 상금(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을 수여한다.

또한, 최우수로 선정된 경우 선정자와 사례대상자 모두 출연한 스토리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접수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참여신청서와 스토리 소개서를 내려받아 우

편 또는 이메일(life_horam@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부모·연인·선배·스승·제자 등 나의 인생 멘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생나눔교실 운영사업(호남권)은 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재단은 국비를 확보해 4년째 호남권 주관자로 운영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230-7445~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안내

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농지 매입

- 매입대상자
 - 이농, 전업,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매입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1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매입농지 임대

- 임대대상자
 - 신규임대 : 전업농육성대상자
 - 재 임대 : 기존 임차인 희망시 계속해서 재임대 가능
- 임대 기간 : 5년(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
- 임대 가격 : 공사에서 정한 임대차료 상한 범위 내 협의가격
- 임대 조건 : 5년간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의 80% 감면 혜택
 - 휴경시 임대료 100% 감면 혜택

kf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 063) 530-0313

'70년의 기억, 전쟁이 남긴 아픔 그리고 화해'

전주대 박물관, 한국전쟁 70주년 맞아 특별전... 내달 12일까지

전주대 박물관(관장 김건우)은 한국전쟁 70주년 특별전 '70년의 기억, 그리고 전쟁이 남긴 아픔 그리고 화해'라는 주제로 11월 12일까지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 박물관에 따르면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로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슬픔을 여무만지고 화·우의 대립이 아닌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의 협조로 발굴조사 중인 전주 민간인 희생자의 유품으로 발견된 허리벨트, 고무줄, 단추 등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각종 유품을 최초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시유품인 허리벨트에는 올림픽 룩인 기와 북상, 그리고 영문으로 'KOREA'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X-Ray' 촬영으로 확인, 유품과 관련된 민간인 희생자가 누구였는지



깊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쑈' 또는 '대고'로 추정되는 글씨가 새겨진 허리벨트 1점도 관람객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전시를 열게 돼 더욱 뜻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많은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문화관광재단, '시민주도형 축제학교' 개강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에서는 지역관광 대표콘텐츠인 지역축제를 시민주도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축제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시민주도형 축제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최근 개강했다.

이번 축제학교는 지역축제 및 이벤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축제이벤트경연사 3급 자격증 취득 기회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민주도형 축제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익산문화관광재단 3층 회의실에서 운영되

며, 만약 코로나의 확산여부에 따라 온라인강의로 전환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과목은 축제 및 이벤트를 위한 이론적 접근에서부터 파급효과, 축제경영 전략, 축제 및 이벤트 성공사례 연구 등이며 관련 분야에 저명한 강사진으로 구성, 참가자의 성과를 높여 최종적으로는 축제이벤트경연사 3급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재)익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iscf.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063-843-8817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공연·전시

영화와 뮤지컬의 주옥같은 OST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 23일 김제문화예술회관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영화와 뮤지컬로 만나보았던 레미제라블의 음악 중 우리에게 익숙한 곡을 선정하여 갈라 형태로 들려줄 예정으로 지난해 공연장 상주단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만큼 수준 높은 무대가 예상된다.

장발장역의 박진철이 부르는 '집으로(Bring Him Home)'를 비롯하여 주옥같은 모음곡을 전라북도 대표 성악가 8인과 드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연주로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배부는 20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무료 배부된다. /김제=곽두태 기자

